

한국법제연구원 NEWS

한국법제연구원- 충청남도의회 업무협약 체결식 개최

일시
2021년 3월 10일(수)
장소
충청남도의회 국제회견장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충청남도의회(의장 김명선)는 10일(수) 충청남도의회 국제회견장에서 자치법규 발전방안 모색 등 입법정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자치 발전 및 자치분권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 충청남도의회 김명선 의장을 비롯하여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약식에서 ▲자치법규 및 입법평가 관련 정보 공유 ▲실무협의회 운영 ▲법제 자료의 공유·제공 등 제반 업무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은 “자치법규는 제정 건수 측면에서 볼 때 이미 많이 성장했다”며 “이제는 사후에 법제의 실효성과 규범력에 대해 평가하여 입법의 질을 높일 때”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법제연구원은 이론과 실무를 바탕으로 충청남도의 입법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충청남도의회 김명선 의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충청남도의 자치입법권에 실효성과 전문성이 더해져 도(道)와 도민(道民)이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제6차 사회적 가치 법제 포럼」 개최

일시
2021년 3월 26일(금)
장소
그랜드 하얏트 서울, 남산 5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3월 26일(금) 그랜드 하얏트 서울, 남산 5에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E.S.G. 활용 방안'을 주제로 제6차 사회적 가치 법제포럼을 개최했다.

이은선 경상국립대 교수, 박동규 한양대 교수, 장운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박사가 발표자로 참석하였으며 헌법, 국제법, 행정법, 상법, 조세법 등 법제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E.S.G.와 관련된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

사회적 가치 법제 포럼은 2019년 9월 “사회적 가치 평가 방법의 구현-공공기관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1차 포럼을 개최한 이래 이번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E.S.G. 활용 방안’까지 총 6차에 걸쳐 포럼을 진행, 사회적가치의 법제화에 대한 논의를 이끌었다. 사회적 가치 법제 방향성 모색과 정량화/측정 제도 방안 마련'에 초점을 두었던 지난 사회적 가치 법제 포럼에 이어 이번 포럼에서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E.S.G. 현황파악 및 활용 방안 모색, 공공 및 민간 분야 간의 지표 연계성 확보, 기존 법체계상의 수용가능성 증진 방안 마련 등을 위한 심도 깊은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E.S.G.법제화 기틀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를 진행한 사회적가치법제팀에서는 “COVID-19 확산 이후 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E.S.G.)”에 대한 논의가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 및 활동에서 각국 정부차원의 공시 가이드라인 및 법제화로 이동되고 확장함에 따라 국내외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E.S.G.법제화 전략을 맞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영문학술지 KJLL
게재 논문 저자
우수연구자상 수상**

일시
2021년 3월 26일(금)
장소
우즈베키스탄 대법원(타슈켄트)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에서 발간하는 법제전문 영문 학술지 KLRI Journal of Law and Legislation(이하 KJLL) Vol.9 No.1에 수록된 논문의 저자 무카매드자노프(Amanulla Zakirovch Mukhamedjanov)가 ‘법치주의 정의(JUSTICE IS IN THE RULE OF LAW)’ 시상식에서 ‘Most Active Researcher’로 지명되는 영광을 안았다.

2021년 3월 26일, 우즈베키스탄 대법원에서 우즈베키스탄 헌법재판소장, 고등사법위원회 위원장, 주(駐)우즈베키스탄 미국 부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JUSTICE IS IN THE RULE OF LAW”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심사위원단은 약 1200개 자료에서 750개의 연구 성과를 선정했으며, 15명의 후보자 중 5명을 지명했다.

KJLL Vol.9 No.1에 수록된, 현대사회 우즈베키스탄의 헌법 개선 방향을 담고 있는 논문 ‘Formation,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the Constitutional Justice in the Republic of Uzbekistan in the Modern Conditions of the Society’의 저자 무카매드자노프(Amanulla Zakirovch Mukhamedjanov)는 이날 시상식에서 KJLL 논문 게재로 활발한 연구실적을 인정받아 ‘Most Active Researcher’로 지명되었다. ‘Most Active Researcher’는 권위 있는 외국 저널에 게재된 논문의 저자에게 수여한다.



이날 시상식은 국가 사법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국 국제개발처(USAID)와 유엔개발계획(UNDP)이 지원하는 “우즈베키스탄 법치주의를 위한 파트너십(Partnership for the Rule of Law in Uzbekistan)”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한편 2011년에 창간한 KJLL은 연 2회 세계 각국의 법률과 입법 관련 이슈 및 동향에 관한 분석, 비교법적 연구논문을 구성하여 발간하고 있다. 2019년에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에서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되었으며, 현재까지 총 103편의 논문이 수록됐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초청 제43회
입법정책포럼 개최**

일시
2021년 3월 29일(월)
장소
JW메리어트호텔
그랜드볼룸2(5F)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29일(월) JW메리어트호텔 그랜드볼룸2(5F)에서 ‘코로나19,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을 발제자로 초청하여 제43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한 방역하에 제한된 참가 인원으로 진행되었으며, 동시에 한국법제연구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되었다.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은 개회사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불빛이 더욱 커지는 것 같다”며 “오늘 포럼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국민이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관련 법제도 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강립 처장은 코로나19 이후 지난 1년간의 대응과정과 성과를 되돌아보고, 국민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한 백신, 치료제 도입 등 식약처의 당면과제들에 대해 발제했다. 특히 일상과 방역의 조화를 추구하여 경제 피해를 최소화했던 코로나19 대응전략을 공유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식약처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입법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입법과제를 발굴하는 자리로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정세균 전 국회의장, 김형연 전 법제처장,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럼에 참석해 발표한 바 있다.

한국법제연구원, 제16회 통일법 포럼 개최

일시
2021년 4월 9일(금)
장소
롯데호텔 서울 벨뷰스위트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9일(금) 오전 10시부터 롯데 호텔 서울 벨뷰스위트에서 김연철 前통일부장관(現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을 발표자로 초청하여 '2021년 남북관계전망과 법제 연구 방향'을 주제로 제16회 통일법 포럼을 개최하였다.

김계홍 원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는 지금껏 그래왔듯이 분단의 당사자로서 주도적으로 평화와 통일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포럼이 한반도를 평화와 번영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정부 정책 속에서 우리가 어떤 연구와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찾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연철 前통일부장관(現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은 코로나19와 미 대선으로 큰 변곡점을 맞이한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대응하여 통일법제 연

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특히 북한의 방역 동향과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국제 정세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고, 비무장지대 토지소유권 문제 및 평화협정, 개성공단의 재산권 보호 등에 관한 연구 과제를 제안했다.

발표 이후에는 법제처, 법무부, 통일부 등 정부 관계자를 비롯하여 법조계, 학회, 연구계 등 각계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통일법제에 관한 심도 있는 의견교환을 통해 통일법 분야의 현안 대응력을 제고하고 통일법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2016년부터 통일법 포럼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분기별로 1회씩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조정학회 업무협약 체결

일시
2021년 4월 12일(월)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중회의실1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한국조정학회(회장 김용섭)는 4월 12일(월) 한국법제연구원 중회의실1에서 연구 및 교육 분야 등의 상호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사항은 ▲공동연구 및 공동학술세미나 개최 및 상호 참석 ▲연구자료, 보고서 및 기타 자료의 공유·활용·교류 등이다.

양 기관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조정제도의 현황과 전망을 논의하는 컨퍼런스 개최를 추진하는 등 조정 분야에서 교류의 장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한국법제연구원-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공동포럼 개최 및 업무협약 체결

일시
2021년 4월 16일(금)
장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16일(금) 오전 10시부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홀에서 ‘유네스코 AI 윤리 권고 현황 및 법적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였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한경구)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 시대 도래에 발맞추어 유네스코 AI 윤리 현황과 주요 법적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법제 변화를 전망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포럼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과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각 기관의 사업을 소개한 후에, 한양대 이상욱 교수가 ‘AI 윤리

의 국제적 쟁점과 국내 논의에 대한 시사점-유네스코 AI윤리 권고안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하고 한국법제연구원 장민선 연구위원이 ‘인공지능 시대의 법적 쟁점과 변화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입법조사처 박소영 입법조사관, 이용빈 의원실 김형균 보좌관을 비롯하여 서울대 임용 교수, 서울과기대 김현경 교수,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호영 본부장 등 인공지능 정책과 관련된 각계 전문가가 활발하게 의견을 주고받았다.

포럼 이후에는 한국법제연구원과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업무협약 체결식이 이어졌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동 연구 및 공동학술행사 개최 및 상호 참석 ▲연구사업 및 현안과제 등에 대한 상호 자문 ▲연구자료, 보고서 및 기타 자료의 공유·활용·교류 등이다.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인간 중심의 사회·경제 체제 및 법질서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혁의 시점에서 오늘 포럼과 업무협약은 인공지능 관련 윤리적 사항들의 법제화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홍성국 국회의원 한국법제연구원 방문

일시
2021년 4월 23일(금)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중회의실1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이 4월 23일(금) 한국법제연구원을 방문해 김계홍 원장을 비롯하여 강현철 부원장, 이순태 연구본부장, 차현숙 미래법제사업본부장, 현준원 경영지원실장, 손현 연구기획팀장, 김은정 연구위원과 만나 면담을 진행하였다.

특히 요즘 화두로 떠오른 E.S.G.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사회적가치법제사업뿐만 아니라 규제혁신법제연구사업, 기후변화법제연구사업 등 2021년 한국법제연구원의 주요 연구업무 계획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참석자들은 각 연구사업 주제의 중요성에 공감하였다.



한국법제연구원-항공안전기술원 업무협약 체결

일시
2021년 4월 28일(수)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항공안전기술원(원장 김연명)은 4월 28일(수)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우리나라 항공안전기술산업 발전과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사항은 ▲연구사업 및 현안과제 상호 자문 ▲항공안전데이터 공유·분석·활용 공동연구 ▲연구자료 및 인적자원의 교류 등이다.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항공안전데이터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법제 연구를 이루길 바란다”고 상호협력의 의지를 밝혔다.

항공안전기술원 김연명 원장은 “오늘 협약은 인문사회 분야의 한국법제연구원과 과학 분야의 항공안전기술원의 만



남이 이루어진 뜻깊은 자리”라며 “두 분야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은 효율적인 항공안전데이터 관리방안을 연구하는 등 협력의 장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2021 한국법제연구원- 한불법학회 국제공동학술회의 개최

일시
2021년 4월 30일(금)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스마트회의실/
한국외대법학연구소 801호
(화상회의)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30일(금) 오후4시부터 한국법제연구원 스마트회의실과 한국외대법학연구소 801호에서 “디지털 사회의 법적 기반”을 주제로 국제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본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최되었으며,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프랑스의 국내외 전문가 40명이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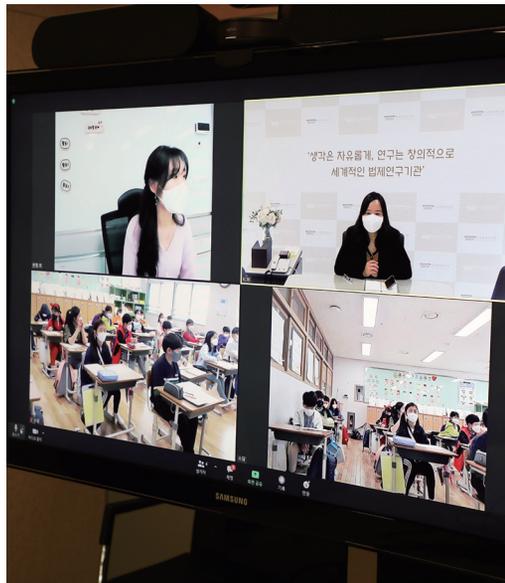
이번 국제공동학술회의는 AI와 빅데이터 등 디지털 사회의 주요 신기술과 관련된 법정책과 법적전략 수립에 대한 경험

을 공유하고 이론적 논의를 이어나감으로써 국내 입법 설계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개최되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이번 학술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관련 분야 입법자료로 활용하고 원내 과제 및 보고서로 발전시켜나갈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디지털 사회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분야별 입법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국내외 연구 네트워크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한국법제연구원, 소담초등학교 학생 대상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 실시

일시
2021년 5월 4일(화)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소회의실
202호(화상회의)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4일(화), 세종특별자치시 소담초등학교 4학년 학생 약 20명을 대상으로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본 행사는 관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한 비대면 온라인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법제연구원 소개를 시작으로 연구자 인터뷰, 질의응답 순으로 구성되었으며, 대외협력홍보팀 최지연 팀장의 진행으로 소담초등학교 학생들의 활발한 질문이 이어졌다. 특히 “사람의 이름으로 법을 만들 수 있나요?”, “코로나19와 관련된 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등의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높았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 교육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 사회 학생 및 교사를 위한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인터넷법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일시
2021년 5월 7일(금)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7일(금) 오후 1시 30분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에서 한국인터넷법학회와 함께 '인터넷 플랫폼 규제 혁신: EU 디지털서비스법의 쟁점과 시사점'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인터넷 플랫폼의 사회·경제적 영향력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균형 있는 규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대내외적 인식에 따라 마련되었으며, 관련 분야 국내 전문가 약 20인이 발표와 토론에 참여했다.

특히,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규제의 방향성 및 내용과 관련하여 최근 활발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유럽연합(EU)

의 법제도 개선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인터넷산업 현실에 적합한 규제혁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국법제연구원의 김계홍 원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유럽연합(EU)은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0년 7월 12일부터 소위 'P2B(Platform-to-Business) Regulation'을 시행하고 있다"며 "과거의 방식으로는 인터넷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현상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없기에 이번 학술대회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나라의 인터넷산업 발전을 위한 플랫폼 규제의 입법 대안을 도출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신산업·신기술 육성을 저해하는 규제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주요 산업분야에 대한 규제혁파를 입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1년 '규제법제연구센터'를 신설하여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공동학술대회 개최를 통해 플랫폼 및 인터넷 규제 분야 전문가 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활성화시키고, 지속적인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김연명 前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초청 제44회 입법정책포럼 개최

일시
2021년 5월 24일(월)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24일(월) 오후 4시부터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前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를 발제자로 초청하여 '문재인 정부 포용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제44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한국법제연구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되었다.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은 개회사에서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제언은 입법 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고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한국법제연구원 구성원의 연구 선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연명 前사회수석은 포럼에서 포용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고용안전망, 소득안전망, 의료·돌봄안전망, 방역 의료체계 등 현 정부 사회안전망의 성과를 소개한 후 정책적, 입법적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김 前수석은 발제에서 코로나19 이후 취약계층을 위한 노동 안정화 및 상병수당 도입,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법·정책을 정비할 것을 강조했다.

발제 이후에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효과,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고용보험 의무화, 미국의 뉴딜정책 등과 관련하여 참석자들의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